## 논문예정제목과 논문줄기

**예정제목**: ‘있다’(einai)의 쓰임새 - ‘소피스테스’, ‘파르메니데스’, ‘국가 427d1-449a, 471dc2-521b’, (파이드로스), ‘카테고리아이’, ‘메타퓌지카’, ‘영혼에 관하여’에 있어서

**논문줄기**: 위의 열거된 책들 속에서 에이나이가 각기 어떻게 쓰였는지를, 그리고 같게 쓰여진 글자들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같게 쓰여졌다면 그 글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그리고 다르게 쓰여진 글자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그리고 다르게 쓰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를 끄집어 내 보이고져 한다.

## 논문작성의도

눈 앞의 나무 벽을 바라 보면서 이 벽은 무엇일까 라고 소름끼치게 생각 해 보았으나 뭉개구름 만이 무럭 무럭 온 몸에서 솟아 올랐을 그 때 나는 지리산에 있었다(1989-1994)....그리고 지금(1995년) 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지금(2003, 9)도 준비하고 있다]. 지혜로왔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해 그 나무 벽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려 했으나 공허로움 만이 밀려왔다. 그나마 나의 공허로움을 달래주는 자는 맑쓰 뿐이었으나 맑쓰와 나와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었고 나와는 존재론적 토대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이 역시 사회를 통해 인류의 존재를 완성시켜보려 했으나, 그랬기에 이미 학자의 길을 벗어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 당시 철학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 어째든 그 나무 벽은 인류 노동의 소외 역

사의 소산일 거라는 통찰은 지금도 나의 가슴을 꿰뚫고 지나간다. 소름끼치는 통찰이었다. 추상적인 생각이 아닌 몸이 역사적으로 움직여 만들어 낸 것이었으나 지금은 만들어 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버린 그 나무 벽 그 소외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 아! 너무 소름끼친다. 아마 올바른 통찰일 수도 있으리라. 이미 나는 헤애겔을 거쳐 아퀴나스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나 플라톤을 넘어 아우그스티누스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그들을 완전히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들에 관한 프라그마타(사실들)은 내 안에서 메스꺼움을 일으킨다. 이 메스꺼움으로부터 플라톤이 진리에 멀긴해도 가까이 닥아서고 있을 거라는 즐거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비록 완전하게 '있다'를 나에게 가르쳐주지는 못할지라도 말이다.

태초에 땅과 하늘이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은 나를 더욱 소름끼치게 만든다. '있음'이 만들어졌단다! 그럼 그렇지 어떻게 그 나무 벽이 지 혼자 저절로 스스로 있을 수 있나. e[n(하나)는 '있음'과도 다르다는 플라톤의 생각은 있음도 그 무엇으로부터 비로서 있게되어진다는 것을 함출하고 있으리라. 그런데, 이미 플라톤에게서도 있음이 망각되었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서양철학은 이 있음(Sein)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이데거는 우긴다. 있음을 망각(Vergessen)했단다. 우하하하! 망각했단다. 웃기는 얘기... 망각했다고 우길려면 그 있음이 무엇이라고 말해주어야지, 그것도 못하고선 기껏 Dasein(다자인, 지금여기있는 것, 현존재)만을 분석하고 말았지. 허허, 뭐? 인간(Dasein)만이 '있다'를 문제 삼는다고? 그럼 '있음'이 무에야? 말로 표현 못

하면 못 허겠다고나 하지! 하긴 있음은 언어를 떠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만큼 있음을 알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리라! 그러나 있지 않는 것(to mh on)은 말해질 수 없고 있는 것(to on)만이 말해질 수 있다 라는 플라톤의 이야기는 비록 '있다'를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아니 했으나 나를 설득시키는 판결이었다.

나는 이 '있다'를 추적하고 싶다. 지금의 논문에선 단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논문을 쓰려한다. 그러나 나는 벌써부터 수렁에 빠지고 있다. 원문들이 너무 논리적으로(logikwj)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